

## 次世代 原子爐 개발 原子力先進國 진입

과기처, 기술자립  
및 안전성확보책 보고

과기처는 지난 1월28일 청와대에서행한 '91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95년까지 원자력기술자립을 95%달성하고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원자력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하고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차세대 원자로와 핵연료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21세기에는 원자력선진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또 안면도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분에 알맞는 적정 후보지를 조사하고 선정된 부지는 「國土建設綜合計画法」 상의 특정지역으로 고시·개발하되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원자력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高油價時代에 對處한 에너지技術自立과 産業體質의 強化

'90.8이후 진행중인 『걸프灣事態』는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地球環境保全運動은 비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어 깨끗한 에너지의 확보와 에너지節約技術開發이 국가적 당면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 가. 에너지節約 및 合理的 利用技術 開發·普及 (10.13 특별선언)

○ 「高油價危機」를 國內産業構造高度化의 『機會』로 활용 (폐灣特委와 協調)

【重點課題 例示】 (17과제 긴급지원, 5년계획 수립추진)

- 産業에너지: 공정의 열효율 향상, 폐열회수·재활용 등
- 建物에너지: 새로운 건물 단열재 개발
- 輸送에너지: 자동차 연비향상장치 및 대체연

료기술개발

- 電氣에너지: 절전형 전력기기 및 소재 개발 등

나. 石油 代替燃料 利用技術 開發擴大(動力 資源部와 共同)

○ 石油依存度 輕減을 위하여 經濟성이 높은 代替燃料利用技術 開發

【重點課題 例示】

- 燃料電池 技術開發: 석탄 및 천연가스로 高效率發電 가능

- 高效率 가스터빈開發: 발전, 선박, 항공용 엔진의 효율 향상

다. 原子力技術自立 및 安全性確保

**基本目票**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次世代 原子爐와 核燃料를 본격개발하여 21세기 原子力 先進國에 진입토록 할 것이다.

- '95년까지 기술자립을 95% 달성

-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신뢰받는 원자력문화 정착

【原子力技術自立的 本格的 推進】

○ 안전성이 완벽하고 경제성이 증진된『新型 安全爐』를 2001년까지 개발추진

- 多目的研究爐의 자력설계·건조를 통해 기반구축 ('92년 완공)

- 「新型安全爐 研究開發團」을 구성하여 범국가적으로 공동추진

○ 高度 安全性이 입증된 原子力 地域煖房爐의 개발·보급

- '93 大田 EXPO에 모형爐 전시, '95년부터 原子力研究所에 실증爐 운영

○ 輕水爐에서 사용한핵연료를 중수로에 재활용하는 循環核燃料의 중점개발

- '96년까지 循環核燃料 검증완료, 2007년부터 양산단계 진입

- 「循環核燃料 技術開發團」을 구성하여 가용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

【原子力 安全性의 劃期的인 提高】

○ 原子力關聯施設·資料 및 정책의 공개로 安全規制 行政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持續的인 疫學調查, 放射能環境調查를 통해 原子力施設周邊의 쾌적한 환경보존

○ 安全을 우선하는 사업의 전개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確認·檢證

○ 國內外 綜合對應 情報網 설치·운영으로 원자력 비상사태에 신속대응

○ 금년 상반기까지 『原子力長期發展綜合計劃』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추진

라. 安眠島事件 後續措置 推進計劃

安眠島事件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關連지역 주민과의 對話와 說得이 필요하며 原子力의 安全性에 대하여 國民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汎國家的으로 체계있게 추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適正敷地 選定을 위한 對策】

○ 전국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사전조사를 거쳐 適正 候補地 導出

○ 『地域惠澤事業』을 倅격적으로 실시하여 해당지역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시설투자, 소득증대, 학자금 支援 및 지방업체 육성 等

○ 선정된 부지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상 『特定地域』으로 고시·개발

【原子力에 대한 國民의 理解增進을 위한 對策】

○ 原子力 産業界의 공동참여하에 『原子力弘報 綜合計劃』을 수립·추진

- 言論人, 地域人士等 輿論指導層의 原子力施設 見學 확대

- 外國著名人士를 초칭하여 原子力安全에 關한 심포지움, 세미나 等 개최

○ 국민이 參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弘報 施設을 설치·운영

- “原子力 弘報·文化館” 및 “原子力 副產物 示範管理施設”을 건설